

미국, 유전자변형 작물 생산 확대

농산물 가격상승 힘입어 증산계획 ... 변종작물 수요도 급증

미국 농작물 재배업자들이 최근 옥수수, 목화, 콩 종자 가격강세에 대응해 유전자변형(GM) 작물 사용을 확대하고 있어 생명공학에 희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오일씨드(Oilseed)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 산하 국가농업통계청(NASS)이 조사한 2004년 작물재배계획에 따르면, 2004년 생명공학 콩의 생산량이 전년대비 9.2% 증가해 전체 콩 생산량의 86%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생명공학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대비 9.7% 늘어난 46%, GM 목화는 9.1% 증가한 7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생명공학 작물의 재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농작물 재배업자들이 생명공학 기술의 혜택, 즉 질병 저항력 향상 및 살충제 사용 감소, 그리고 생산량 증대 등 효과를 실감했기 때문이다.

1996년 최초 도입 이후 생명공학 종자 재배가 모든 작물영역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농부들이 개선된 작황을 맞보면서 유전자 변형종자를 계속 선호하고 있다.

2004년에는 총 7540만에이커(acre) 상당의 콩 재배면적 중 제초제 저항성 콩이 6480만에이커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에는 약 5950만에이커 상당의 제초제 저항성 콩이 재배됐다.

2004년에는 농작물 가격상승에 힘입어 대부분의 재배업자들이 증산을 도모하고 있어 3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최대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는 2004년 약 3630만에이커가 생명공학 변종으로 재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3년의 3150만에이커에 비해 15% 정도 증가할 것이다. Bt(Bacillus Thuringiensis) 옥수수변종은 2003년 1970만에이커에서 2004년 2130만에이커로 증가 될 전망이다. 제초제 저항성 옥수수는 28% 증가한 1110만에이커, Stacked-Gene 변종(병충·제초제 저항성)은 25% 증가한 395만에이커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저널 2004/08/17>